

상록탑

초심으로 돌아가 저널리즘을 되새기며

‘초심’. 참 상투적인 단어다. 뻔하고 지겨운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단어의 무게감에 대해서는 항상 동감하게 되는 애증의 단어다. 당연하고 뻔해 있는 것도 너무 쉬운 그런 단어가, 문득 와 닿는 순간이 있다. 4학년의 반이 저물어 가는, 그리고 편집국장 임기의 절만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이 바로 필자에게 그런 순간이었다.



양한주
편집국장

이 글을 쓰는 이날, 필자는 이대학보에 들어온 지 정확히 2년이 됐다. 당시 편집국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 선배 기자들을 보며 수습기자였던 필자는 설레는 맘으로 2년 후 좁은 저널리즘 수업에서 배웠던 그 이상적인 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왕성한 호기심과 주변에 대한 관심으로 온갖 자질한 사건을 모두 기사로 쓰겠다고 기획안으로 가져왔고, 가져온 기획안의 대부분은 킬(kill) 되는 뼈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기를 멈추지는 않았다. 작은 기사를 쓰는 것도 몇 시간을 끄덕대야 했지만, 그래도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 다시 돌아본 필자의 ‘저널리즘’은 그리 이상적이지 않은 않았다. 과제에, 시험에, 취업 준비에, 바쁜 마감까지 함께 해야 하는 상황에서, 초심을 챙기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기계처럼 글을 써냈고, 신문을 만들었다. 정신없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정신을 차려보면 신문이

“**치열하게 고민하던 저널리즘의 의미 잊지말자**”

나와 있는 일상이 반복됐다. 그러다 얼마 전, 서울여대 학보의 1면이 백지로 발행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서울여대 학보는 서울여대 총학생회가 청소년노동자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축제를 이유로 수거한 것에 대한 졸업생 143명의 성명을 1면에 실고자 했지만, 주간교수의 거부로 실지 못했다. 성명을 실는 일이 ‘중립’에서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해당 교수의 말이다. 백지 발행은 그러한 주간교수의 편집권 침해에 대한 항의의 의미였다.

학보의 1면이 백지로 발행된 것은 서울여대 학보가 처음이 아니다. 대학 언론의 편집

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학보사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울여대 학보의 백지 발행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은, 아마도 편집국장이 됐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1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순간 그 ‘초심’이 떠올랐다. 그 단어의 무게감이 필자를 짓눌렀다.

편집권 침해 논란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미 그 질질맞이 너무나도 명백한 문제다. 서울여대 학보가 빠른 시일 내에 편집권으로 표상되는 그들의 ‘1면’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필자를 부끄럽게 한 것은, 그 비어있는 1면에 담긴 기자들의 ‘고민’이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잊어버렸던 필자의 초심은 그러한 고민이 만들어낸 저널리즘이 담긴 신문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초심을 되새기는 일은 어렵지 않다. 초심은 언젠가 자신이 가졌던 강한 의지다. 필자에게 ‘저널리즘’이 여전히 가슴을 뜨겁게 하는 목적인 존재인 것처럼, 다행인 것은, 필자에게는 아직 한 학기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다시 ‘초심’을 말하고자 한다. 고민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2년 전 수습기자의 마음으로 이대학보를 만들 것이다. 훗날 편집국장을 끝내고 돌아보는 날, 필자가 만든 신문이 2년 전 한 수습기자가 그렇게 선망하고 고대했던 ‘저널리즘’을 말하는 신문이기를 바란다.

학생 칼럼

평범한 일상도 모이면 가치있다

갑자기 찾아온 병마 때문에 평생 한번 있는 새내기 생활을 뒤로 미뤄둔 동생이 있다. 어느 날 수술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동생은 암울하게 앉아있는 나에게 “대학입학 자기소개서에 쓸 얘기가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이번 일 덕에 세상은 거뜬히 채우겠네!”라며 자조했다. 그 와중에 자기소개서를 떠올리는 동생에 어이없어하며 나는 “그래 좋겠다. 나도 좀 베껴 써도 되나?”고 되받아쳤다. 취업을 위해 ‘보여주기식 인생’을 살기위한 한국 사회 청년들의 웃(기면서 슬)픈 현실이다.



김지현
언론·11

우스갯소리는 장난을 넘어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었다. 발등에 불붙은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 입맛에 맞춰 자기소개서를 거짓으로 쓴 것이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573명을 대상으로 ‘취업 스토리를 과장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36.6%가 ‘취업을 위해서라면 스토리를 과장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24.6%는 이미 구직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스토리를 과장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의 이야기를 통해 잠재력과 인성을 파악하고자한 스토리 전형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흔히 거론되는 취업난이 아닌 지원자들의 몰이해 때문이다. 인사 관계자는 지원자들이 영화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상을 대하는 자세, 작은 에피소드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만의 시각 등을 찾고자 한다.

“**자기소개서에 일상의 느낌들을 담아 나만의 「토지」를 만들자**”

그러나 필자를 비롯한 많은 대학생, 구직자들은 자신의 평범한 인생이 경쟁력이 없다며 과소평가한다. 기승전결의 골목이 가파른 시나리오가 먹힐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 눈에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사, 아무 탈 없이 거처 온 학업 등은 별 별 사람들이 다 있는 취업 시장에서 눈길을 끌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마치 하나의 기업과 직업을 바라보고 역경을 헤쳐온 양 자기소개서를 꾸미게 되는 이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의하면 서사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플롯’이다. 시학에 의하면 서사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이 필연적 인과관계에 따라 질서정

연하게 나열될 때 가장 훌륭한 스토리가 나오게 되며 연민, 슬픔과 같은 감정(파토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상업영화나 드라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형식이다.

한편, 현대문학의 급자탑이라 불리는 박경리의 「토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주장하는 ‘올바른 서사 전개 방식’을 벗어나 독자적인 형식을 갖춘 것으로 높게 평가받는다. 500명이 넘는 토지의 등장인물들은 계급도 다르고 저마다 가치관도 다르다. 각 인물들의 이야기가 모두 하나의 사건에 관계하는 것도 아니다. 일제 치하 독립운동가와 한 가정의 가장 사이에서 고민하는 김길상, 양반 남편에게 멸시와 구박을 받으면서 아들 둘을 바르게 키우고자 아등바등 살아간 중인 출신 함안택 등 저마다의 삶은 소박하면서도 또 다르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인생은 「일리아스」, 「오딧세이아」보다는 「토지」와 같다. 기대수명의 절반도 채 살지 않은 우리에게 삶의 골목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파르겠는가.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하루하루가 모여 지금의 내가 된 것이다. 자기 소개서를 화려하게 쓰지 못할지언정 지금까지 살아온 소중한 날들을 기만하지는 말자. 일상에서 느낀 작은 느낌을 담아 나만의 토지 같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스토리다. 아리스토텔레스식 스토리만이 살아남으라는 법은 없다.

여론광장

나는 방학이 두렵다

나는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한 학기를 패기 넘치게 계획해왔다. ‘이번 학기는 꼭 성적 장학금을 받겠다’, ‘이번 학기에 토익 900을 넘겨야지’, ‘대외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야겠다’, ‘체력도 좋아야 하니까 아침마다 헬스를 해야지’ 등 새 학기를 시작할 때의 마음은 이미 과수석이다. 그리고 개강하고 한 달이 지나면 내 의지들은 이런 저런 핑계로 슬금슬금 사라지고 종강만을 기다리며 ‘이번 방학만은 알차게!’라는 새로운 종강다짐을

한다. 이렇게 새로운 다짐의 무한 루프를 5학기 째 반복하는 지금, 나는 종강이 두려운 시점이 왔다.

1학년, 2학년 방학에는 스펙을 위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았다. 과거의 나는 어리석게도 자격증, 대외활동 등 스펙에 방학을 쏟는 사람들을 바보 같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렇지 않음에 우쭐했다. 하지만 이번 방학만큼은 ‘스펙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엄습한다. 취업이라는 목적을 위한 엄격한 자기 통제식의 자기계발이 공허하다는 것을 난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불안감을 멈출 수 없다. 이 불안감은 학년을 가리지 않고 많은 벗들이 경험 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 내가 이런 불안에 떨 때마다 스스로를 위로해줬던 말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벗들에게 건넨다. ‘Live Simply. Dream Big. Be Grateful. Give Love. Laugh Lots.’ **강서영(사회·13)**

사설

본교, 전달 아닌 소통 하길

일주일 전, 한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본교 학사구조 개편안을 보도했다. 본교가 20년 만에 학부에서 학과 중심 체제로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일정 평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탄력정원제를 운영한다는 골자의 기사였다. 해당 언론사는 본교의 이번 학사구조 개편으로 선택을 받지 못한 학과에 정원 감축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를 통해 학사구조 개편안을 접한 학생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과제로의 전환으로 소속감이 생길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인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해당 개편안이 결과적으로 비인기 학과 혹은 취업률에서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는 학과의 정원 감축 시초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학생도 다수였다.

본지 또한 해당 언론사 기사로 학사구조 개편안 소식을 접했고, 5월27일 입학처를 방문해 해당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입학처 측은 학과 연구 실적, 타대와 비교, 취업률, 학생 지도 등을 고려한 학과 경쟁력 평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편 방안을 정원 감축 패널티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교육부의 대학정원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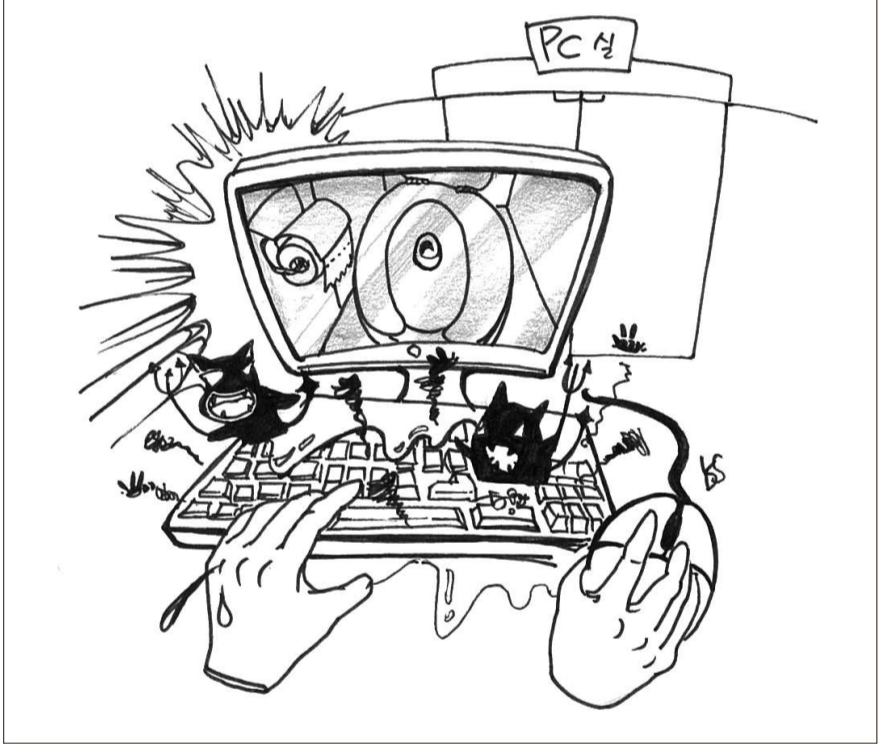
지침에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며, 최소화 원 제도 도입으로 어떤 모집단위도 최소한 20명의 전공생을 확보하게 돼 기초학문을 비롯해서 모든 학문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개편안의 기획 취지에는 이화인이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 과정에는 이화인이 없다. 대다수의 이화인은 이번 개편안을 외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 ‘들었다’. 본교 내 다양한 소통 창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자 신산융합대학 신설, 이화 파빌리온 건설, 학사구조 개편안 등의 사항들은 이미 뼈대가 잡힌 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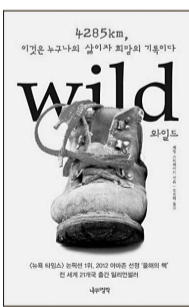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화 파빌리온 건설 또한 본지 보도를 통해 공론화됐다. 본지 기자가 공사 현장에 궁금증을 갖고 취재요청을 하기 이전에는 공사 계획과 취지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화인을 위한 휴게 공간이라는 파빌리온 건설 계획 과정에 정자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비판한다.

문제의 본질은 소통이다.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화인을 위한 정책도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아닌 소통의 선행이다.

만평 윤다솜 만평기자 yonda-som@hanmail.net



금주의 책



와일드 세릴 스트레이드 지음, 서울: 나무의 철학, 2012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머니의 죽음, 이혼, 마약과 무절제한 생활 등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PCT(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라는 도보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PCT는 캘리포니아 주 멕시코 국경에서 시작해 캐나다 국경너머까지 아홉 개의 산맥을 따라 펼쳐지는 4285킬로미터의 길입니다. 더 이상 앓을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여정의 끝에서 그녀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곧 여름방학을 시작할 이화인 여러분들도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여정을 계획하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대 도서관 좋은 책 추천위원회-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 인기도서], [3층 일반자료실 823 St82w한]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Consumer behavior : buying, having, and being 11th ed., Global ed	Solomon, Michael R.	Pearson	2015
2	정글만리 : 조정래 장편소설	조정래	해냄출판사	2013
3	미생 :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택호	위즈덤하우스	2012-2013
4	노무현 시대의 명망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11
5	마르그리트 뒤라스 : 거침없는 삶과 문학	Vircondelet, Alain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3
6	교회음악사리드		이가페 음악선교회	1981-19--
7	요제비	포송령	민음사	2002
8	나쁜 시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부키	2007
9	고급 SPSS 이해와 활용	박성현	한나출판사	2011
10	꾸뻬 씨의 행복 여행	Lelord, Francois	오래된미래	2004
11	(통합) 국제정치학 3판	이상구	북이그집	2013
12	고요한 등강 / 개정판	Sholokhov, Mikhail Aleksandrovich	일월서각	1993
13	유럽 개정10판	김상아	상성출판사	2013
14	황제의 외동딸 : 윤술 장편소설	윤술	피피투스 : 디앤씨미디어	2013
15	(2013 시나공) 컴퓨터활용능력 : 1급 필기	길벗 R&D	길벗	2012